PART 1

포커스

WFP의 대북 영양 및 재난지원

KREI

WFP의 대북 영양 및 재난지원[1)]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요 약

-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해 10~12월에 북한 63개 군 지역의 어린이 533,470명, 임신부와 수유부 115,961명에게 영양강화비스킷 6,423톤과 영양강화시리얼 2,236톤을 공급했다.
-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식량사업(FDRR)' 2개 프로그램과, 복구활동 참여자에 대한 3개 식량제공사업이 종료되었다. 8~9월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북부지역의 제방을 복구하는 작업 등이 이들 활동에 포함되었다.
-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공학자 2명이 WFP가 지원하는 현지 식품공장 11곳 모두에 방문했다.
- WFP는 11월에 다른 인도주의 단체 및 북한 정부와 함께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공동평가단 활동에 참여했다.
- 현장 모니터 요원들은 모니터링을 위해 총 302개소의 민가, 아동기관, 소아병동을 방문했다.
- 현재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은 크게 부족하다. 2016년 말 현재, 2017년도 사업 추진 소요액의 62%인 3,070만 달러가 부족한 실정이다.

1 WFP의 지원 개요

2016년 4분기 들어 WFP는 북한에서 매월 추진하는 영양지원사업에 더해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식량사업' 활동을 추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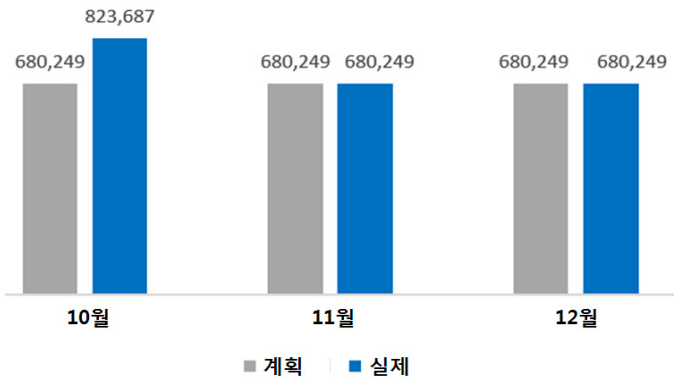
2017년 4월 말 경에는 WFP가 영양 지원을 위해 이용하는 핵심 품목(밀, 옥수수)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2016년 12월 이에 대한 선행조치로 영양강화비스킷 배급량을 계획 배급량의 66%로 줄였다. 이는 영양 부족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계점이다. 이러한

1)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분기 모니터링 보고서(2016년 10~12월), 'WFP DPR Korea Quarterly Monitoring Report - DPRK Nutrition Support for Children and Women and Strengthening Community Capacity to Reduce Disaster Risks(PRRO 200907)'를 번역·정리한 것임.

WFP의 결정은, 새로운 자금을 즉각 지원받아도 재료를 조달해 영양강화비스킷 생산을 재개하려면 4~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6년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북부지역의 수혜자들에게는 배급량을 줄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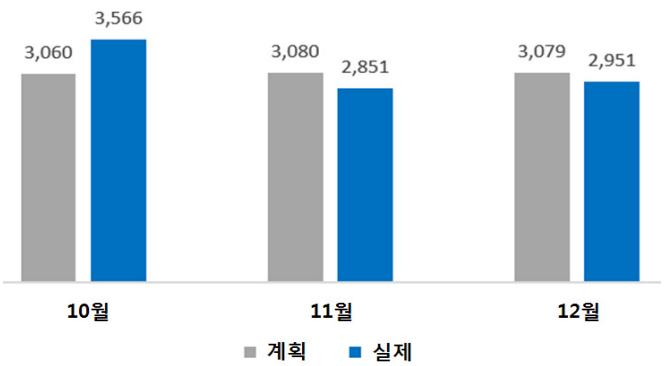
2016년 4분기 기간 동안 WFP는 월평균 72만 8,000명을 지원했는데, 이는 목표 수혜자 수의 107%에 해당한다. 실제 수혜자 수가 목표 수혜자 수보다 많았던 이유는 함경북도의 홍수 발생에 따라 추가로 14만 3,438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6년 4분기의 월별 목표 수혜자 수와 실제 수혜자 수(명)



영양강화시리얼과 영양강화비스킷 지원의 경우, 2016년 4분기 기간 동안 월평균 3,123톤을 제공했으며 이는 목표 배급량의 101%에 해당된다. 2016년 12월에는 한때 영양강화비스킷 배급량이 계획 배급량의 66%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지원량을 증가시킨 후 실제 식량 배급량이 목표 배급량에 근접하게 되었다(그림 2 참조).

그림 2 2016년 4분기의 월별 목표 배급량과 실제 식량 배급량(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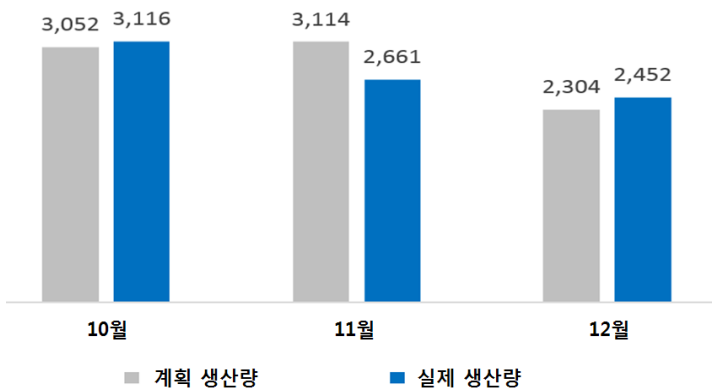
2 현지 식품생산

WFP의 영양지원계획을 위한 영양강화 비스킷과 영양강화 시리얼 생산은 현지 공장 11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지 식품 생산공장 가동 지원은 1998년부터 WFP의 북한 내 핵심 사업이며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WFP는 현지 공장의 개선과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하는 식료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분기에 식품공학자 2명이 WFP가 지원하는 현지 식품공장 11곳 모두를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WFP 요원과 공장 직원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중이다.

북한 지역의 11개 공장에서 2016년 4분기에 생산한 영양강화시리얼과 영양강화비스킷은 총 8,229톤이다. 11월에는 실제 생산량이 목표보다 적었는데, 그것은 겨울철 대비로 10월에 생산된 물량의 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춥고 전력 소비량이 많은 1~2월의 전력 부족에 대비해, 12월에는 목표 생산량(2,304톤)보다 더 많은 양(2,452톤)을 생산해 놓았다.

그림 3 2016년 4분기의 월별 영양강화식품 생산량(톤)



3 홍수피해 대응 활동

8월 말과 9월 초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홍수로 함경북도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북한 정부는 이 재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6만 9,000명이 집을 잃었으며 14만 명 이상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WFP는 6개 군(무산, 연사, 회령, 온성, 경

원, 경흥) 지역의 14만 3,000명에게 1개월 치 영양강화비스킷과 콩을 긴급하게 지원했다.

2016년 10~11월, WFP는 복구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수 피해가 큰 3개 군(무산, 연사, 회령)에서 식량 제공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지역에서 홍수 피해 제방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식량을 지원받은 인원은 총 2만 9,311명이다. 10월에 실시한 1차 사업만으로도 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을 합해 수혜자는 총 11만 4,312명이다. 이들이 배급받은 품목은 콩 430톤과 야자유 43톤이다. 이 활동을 통해 총 13.6km의 제방이 복구되어 지역사회의 추가 재해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2016년 10~12월 기간 동안, WFP는 무산, 연사, 회령군 지역의 어린이 3만 818명과 임신부, 수유부에 대해 영양 지원을 실시했다. WFP는 이들에게 영양강화비스킷 27톤과 영양강화시리얼 106톤을 제공했으며, 이 지원사업은 2017년 3월까지 지속하기로 하였다.

WFP는 2016년 11월에 북한 정부, 9개 인도주의단체들과 함께 홍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 대한 공동평가단 활동에 참여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WFP의 지원물품이 제대로 배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평가활동을 통해 영양실조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과 영양가 높은 식료품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4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식량사업(FDRR)

WFP의 북한 재해지역 모니터링 활동은 지원 식량의 배분 실태, 재해 복구 실태, 향후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사업 추진 실태 등 재해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을 평가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유실되거나 파괴된 주택 신축과 보수에 관해서는, 재해 지역에 1만 1,928채의 주택이 새로 건축되었고 1만 7,698채의 주택이 보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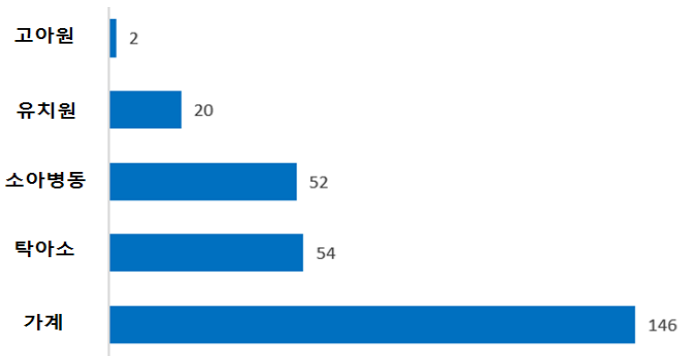
한편 WFP는 2016년 9월에 재해지역 현장 평가를 마치고 '재난피해 감소를 위한 식량사업(FDRR)' 기획안 2건을 채택한 바 있는데,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양강도 삼지연군의 제방 복구사업이었으며 다른 사업은 평안남도 성천군의 경사지 녹화복구사업과 임농복합영농 지원사업이었다. 이 두 사업은 2016년 10~11월에 시행되어 12월에 완료되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평가에 따르면, 이 두 사업에 총 7,467명이 참여하여 280ha의 경사지에 280만 주의 식목을 하고 1.6km의 제방을 복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 시작 시점인 2016년 10월에 참가자에게 식량 105톤을 1차로 제공했으며, 2017년 1월에 최종 배급량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사업의 식량지원으로 총 2만 9,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WFP는 콩과 기름을 추가로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단백질과 지방도 제공하였다.

5 모니터링 활동

WFP 현장 모니터링은 총 62개 지역에 분포한 고아원, 유치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302개소를 방문하며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부와 수유부가 있는 146가구, 아동기관 104개소, 소아병동 52개소를 방문해 모니터링하였으며(그림 4), 개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2016년 4분기 현장 방문 모니터링



소아병동: 2016년 4분기 WFP 모니터팀은 소아병동 52개소를 방문했다.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폐렴, 독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어린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으며, 병원과 소아병동의 난방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탁아소와 유치원: 탁아소 61개소와 유치원 42개소를 방문했다. 방문했던 기관들의 물 부족과 수질 악화가 우려할 수준이다.

기숙학교 및 고아원: WFP 직원은 기숙학교 및 고아원 2개소를 방문했으며, 새로운 학사가 건설 중임을 확인하였다.

임신부와 수유부 가구: 146가구 방문 결과, 주민들은 대개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적으로 섭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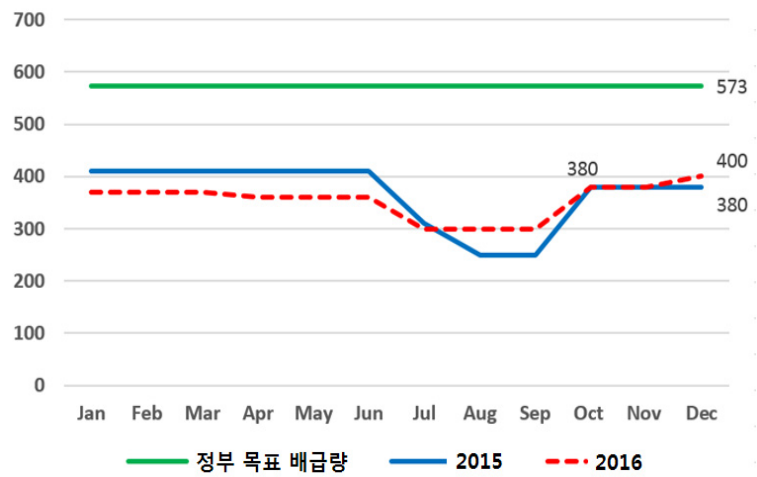
6 식량안보 상황

여러 도(道)의 공무원들은 함경북도 수해지역을 제외하면, 2016년의 주작물(특히 쌀) 작황이 양호하여 2015년 상황에 비해 나아졌다고 밝혔다. 2016년 수확량이 증가한 이유는 양

호한 기상과 비교적 충분한 비료 공급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방문한 3개 군 중 2개 군에서 작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2016년 주작물 수확량 자료를 구할 수 없었음). 그러나 양강도에서는 감자 수확량이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자 생육에 중요한 시기인 8~9월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2016년 10~11월 기간 동안 북한의 공공 식량배급량은 1인당 하루 380g이었으며 12월에는 400g(1일 칼로리 필요량의 약 69%)으로 약간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2월의 배급량에 비해 상승한 것이지만, 정부의 1인당 하루 배급 목표량인 573g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그림 5).[2] 방문한 군 지역 중 일부에서는 식량배급소가 주민의 거주지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 2015~2016년 공공배급제 식량 배급량



7 장기 구호복구사업 200907호의 자금 현황

'장기 구호복구사업(PRRO) 200907(2016.7~2018.12)호'의 전체 사업 소요액은 약 1억 2,590만 달러이다. 2016년 4분기까지 받은 기부액은 전체 사업 소요액의 15.3%인 1,920만 달러이며, 부족액은 전체 사업 소요액의 84.7%인 1억 660만 달러이다(표 1).

이 사업의 올해 부분만 보더라도 3,07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지금(2016

2) 대개 10월의 식량 공공배급은 조기 수확 작물(밀, 보리, 감자)로 구성되며, 11~12월의 식량 배급은 주 수확 작물인 옥수수와 쌀로 구성된다.

년 12월 현재) 즉시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2017년 4월 말에 중단될 것이라고 WFP는 전망한 바 있다.[3)]

표 1 장기 구호복구사업(PRRO) 200907의 사업 소요액 및 부족액

내 용	금 액 (천 달러)	비 중 (%)
전체 사업 소요액	125,863	100.0
- 2016년 4분기까지 받은 기부액	19,295	15.3
- 부족액	106,568	84.7

3) 실제로 2017년 3월에 북한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영양비스킷 지원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뉴스1. 2017.03.28. "WFP, 北어린이 19만명에 영양지원 중단…모금부족 탓".).